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아드리아노스와 성 나탈리아 순교자

마태오 제10주일

성 디도와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이장)

제1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사도 찬양송 / 84, B 262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B 207

· 사도경: 고린토 전 4,9-16 / 봉독서 202

· 복음경: 마태오 17,14-23 / 114, B 4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아드리아노스와 성 나탈리아 순교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창세기 2:18) 이 말씀은 지상에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 그를 도와줄 그와 닮은 이를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나중에 그의 동반자로 여자를 만드셨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종도 아니고, 남자를 지배하는 폭군도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 돕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우자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8월 26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아드리아노스와 성 나탈리아(3세기 말~4세기 초)는 하느님 말씀을 따라서 서로 하나가 되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하고도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보다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다.’를 핑계로 이기적으로 다투고 심지어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성인 부부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 잠들어 계실 때!

주님께서 거친 풍랑을 잠재우신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과 파도로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서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서는 풍랑을 기적으로 잔잔하게 하신 후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겁이 많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코 4:35~41)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종종 유혹의 어려운 시기, 삶의 풍랑과 파도를 만나 ‘침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풍랑 속에서 주님께 외칩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희를 살피지 않으십니까? 저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나의 주여,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잠들어 계십니까?”(시편 44:23)

성 대 안토니오스도 한때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느라 거의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주님께서 늦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 불평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초죽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신성한 빛을 비추시어 악마들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성 대 안토니오스는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라고 주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안토니오스야, 나는 여기에 있었고, 줄곧 너의 투쟁을 지켜보았단다.”

또한 약 한 세기 후에,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도 에브독시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선은 파괴되고, 악은 승승장구하니, 배는 한밤중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어디에도 빛은 없구나. 그리스도는 잠들어 계신 것만 같구나!”

하지만 그리스도는 잠들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 반대하여 일어난 이단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성인을 두 눈 부릅뜨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투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승리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시련에 맡겨두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청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겁쟁이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몸짓 하나만으로도 모든 시련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한 주의 하루하루

우리 교회의 축일표를 보면 한 주의 각각의 날은 그 나름의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1. 한 주일의 첫날은 **주일**이고, 이날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작은 부활절’이다. 이로써 한 주일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의 긍정적인 기운이 확립된다.)
2. **월요일**은 대천사들과 천사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군천사들에게 봉헌된 날이다.
3. **화요일**은 구약의 예언자들 중 마지막 인물인 세례자 성 요한에게 바쳐진 날로서, 그는 성모님 다음으로 첫째이며 가장 위대한 성인이고 여성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마태오 11:11 참조)
4. **수요일**은 성모님과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억한다. 이날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였음을 상기하면서 금식을 한다.
5. **목요일**은 사도들과 모든 교부들께 봉헌된 날이다.
6. **금요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날로 기억되며, 엄격한 금식을 지킨다.
7. **토요일**은 거룩한 순교자들과 이 세상을 떠난 신자들에게 봉헌된다. 이날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다. 따라서 토요일에 죽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 아타나시아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 축일을 축하합니다

8월 30일 축일을 맞이하는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셔서 주님의 양떼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한국정교회를 알기 위한 순례 ▷ 그리스 아테네의 성 필립보 성당에서 디미트리오스 마눌리스 신부님의 주관으로 아나스타시오스 타소쁠로스 대신부, 아벨 콘스탄티니디스 대신부를 비롯하여 총 42명의 그리스 신자들이 한국정교회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18일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19일 월요일에는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을 방문하여 다니엘 대신부님과 함께 대만과를 드리고 인천 성당 부인회에서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알려 주고, 다 함께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다니엘 대신부님과 함께 한국정교회와 인천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일 화요일에는 서울 성 니콜라스 주교좌 대성당을 방문하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으로부터 한국정교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졌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일 수요일에는 부산 성모 희보 성당을 방문하여 알렉산드로스 신부님으로부터 부산 성당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소개를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국정교회의 방문과 우리 신자들과의 만남과 접대에 큰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24일 토요일에 출국 하였습니다. 손님을 맞이해주시기 위해 준비 하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 지난 8월 17일 토요일에 미카엘 문보근과 마리아 조미령 부부의 막내딸인 문예지 아기가 효니아 김복연 대모의 품 안에서 소피아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항상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 원어민 영어 강좌 ▷ ‘원어민 영어 강좌’를 시작합니다. 성당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영어 교습이 오는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포티니 사모와 협조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영어 강좌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성당과 지역 주민을 이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간 예식

- 8월 29일(목) ▷ 세례자 요한의 참수 기념일
- 8월 30일(금) ▷ 성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